

전북 중학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화산중, 아중초·영만초 이어 도내 세번째

학생 주도 탐구 수업 등 미래역량 함양

전북 중학교 최초의 IB 월드스쿨이 탄생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주의 화산중학교(교장 심용택)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MYP(중학교 과정) IB 월드스쿨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3월 IB 관심학교·10월 IB 후보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화산중학교는 이번 IB 인증을 계기로 학생 주도의 탐구 수업과 개념적 이해에 기반한 깊이 있는 수업을 본격 운영한다.

특히, 단순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드는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화산중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중학교 교육에서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실제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IB 월드스쿨을 거점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수업·평가 혁신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용택 교장은 "학생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배움을 일상



완주의 화산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중학교 과정 IB 월드스쿨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사진은 화산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을 꾸준히 주도하는 탐구 수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바꿔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학생

전북교육청,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등 표창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분청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총 7건으로 5급 이하 지방공무원 5명, 교육공무원 1명, 부서 1건 등이다.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부문에서는 행정과 이재준 주무관의 '복잡한 교육행정 정보, 교육행정자료 검색기'로 쉽고 빠르게 가 최우수상을 김재교교육지원청 임대식 주무관의 '공급이 만든 공감 협력'이 이룬 미래 급구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장려상으로는 교직원수련원 이명준 주무관의 '고령 퇴직교직원도 쉽게! 안내 영상으로 회원가입' 속속, 진안중앙초 양우진 주무관의 '학부모도 안심 학생도 안전-학교 승하차준 조성', 미래교육연구원 김희정 주무관의 '학교 디지털 인프라, All-in-one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선정됐다.

이어 전주교육지원청 소성진 임상심리사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연계 실효성 제고: 절반의 성과에서 전면 관리로 도약'으로 교육공무직원 우수상을,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 확보와 교원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한 민주시민교육과가 부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고된 직역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청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표창장 수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 찾다

전북교육청, 헌법교육 책자 제작... 초·중·고교생 시민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헌법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을 수업으로 발견하는 헌법교육 책자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헌법교육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시민성을 강화하는 게 이 책자의 제작 목표다.

헌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찾다라는 제목의 책자는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단순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방법이 적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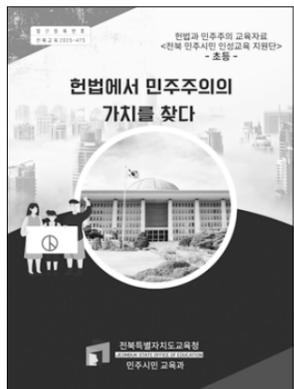
책임, 권리, 공공성, 참여 정의와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하며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학교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헌법교육을 하는 동시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을 하는 등 헌법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책자는 헌법교육 교사를 위한 발표 자료와 함께 수업시간에 바로 적용가능한 학생용 활동지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수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각급 학교에 이 책자를 보급해 학생들의 시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적 화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책 표지.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교 문화를 조성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헌법 정신을 교실과 삶 속에서 발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헌법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수학 마스터즈클럽, 수학 성적 향상 성과 거뒀다

전북교육청 운영... 도내 고교생 30개팀 등 참여, 내신 52%·모의고사 54%로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한 '수학 마스터즈클럽'이 학생들의 수학 학력 신장과 학습 태도 개선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학력신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학 교사를 중심으로 팀당 5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해 수능형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도내 고등학생 30개팀 150여 명이 참여했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학 마스터즈클럽 참여 학생의 성적 분석 결과 내신 성적 향상 비율은 52%, 모의고사 성적 향상 비율은 54%로 확인됐다. 성적 유지 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0% 이상이 안정적인 학업 성취를 보인 것이다.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실천 모의고사

및 심화 문항을 활용한 문제 해결 활동, 풀이 설명과 토론, 오답 분석, 성찰 활동 등 학생 참여형 협력 학습 방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 문제 풀이를 넘어 사고 과정과 해결 전략을 공유하는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실제 A고등학교 학생은 수학 마스터즈클럽 참여 이후 협력 기반 문제 해결 활동과 멘토링을 통해 학습 인식이 변화,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 학생은 "수학 마스터즈클럽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수학 실력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멘토링과 토론을 통해 개념을 차근차근 이해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결국 성적까지 크게 올릴 수 있었다"며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했다.

학생 참여 소감에서도 △자신감 △의사소통 △학습 동기 △학습 습관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다수 확인,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와 정서적 성장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수학 마스터즈클럽이 협력적 탐구 기반의 학생 주도 학습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우수 운영 사례를 학교 현장에 공유하고, 중·장기 학력신장 정책과 연계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서 학폭 전력 지원자 '전원 불합격'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 18명이 전원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이 학교폭력 조치 4호에서 8호까지의 이력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는 지난 24일 최종 등록 결과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에는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했다. 올해에는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확대했다.

지난 2023년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모든 전형에 의무화되면서 입시에서의 적용 기준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김재훈 기자

버려진 전자기기가서 '금' 뽑아낸다

전북대 윤영상·경상국립대 원성욱 교수 공동 연구성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전자폐기물(E-waste) 배출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제 보고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약 5,300만톤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7,4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폐전자회로기판(PCB)은 금과 은 등 고가의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광산'으로 불린다. 그러나 복잡한 금속 조성과 강한 화학처리 공정이 필요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금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대학교 윤영상 교수(사진)와 경상국립대학교 원성욱 교수 공동 연구팀이 강산성 환경에서도 금만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고기능성 흡착 분리를 개발해 이러한 한계 극복에 나섰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과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분리는 이온 기능을 가진 고분자를 플라스틱 기반 막에 안정적으로 결합한 구조로, 금 이온과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구리나 니켈 등 다른 금속보다 금을 우선적으로 흡착할 수 있다. 실험 결과, 해당 분리는 60mg 당 720~870mg 수준의 금을 흡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으며,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흡착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 이온이 분리에 흡착된 뒤 별도의 환원제나 추가 약품 없이 금속 상태로 자연 환원된다는 점이다. 기존처럼 강산 처리나 고온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사용된 분리를 태우면 순도 높은 금만 남는다. 연구팀은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분리는 최소 3회 이상 반복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으며, 실제 폐전자회로기판 용액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공정에서도 금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해 산업적 적용 가능성도 입증했다.

윤영상 교수는 "도시가 곧 광산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버려진 전자기기에서 자원을 되찾는 순환경제 기술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의 제자인 원성욱 교수는 현재 자신이 참여한 창업기업 (주)플라즈마에서 해당 기술의 파일럿 실증을 진행 중이고 밝히며, "배터리 폐기물 등 다양한 산업 폐기물로 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로 평가되며, 향후 귀금속 회수 기술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훈 기자

당뇨 손상 조직 재생 연구 '본격화'

전북대 박동준 교수, 대응재단 신진과학자 연구 지원 선정

GPCR 표적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당뇨 합병증 치료 새 대안



전북대학교 박동준 교수(공대 화학공학부)가 대응재단이 주관하는 '대응재단 신진과학자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당뇨병으로 손상된 신체 조직을 회복시키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연구의 핵심은 타겟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표적으로 한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개발로, 당뇨로 인한 조직 손상을 재생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 유전 정보를 정밀 분석해 도출한 핵심 성분(메이로드, Payload)이 인체 손상된 조직 재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뇨 합병증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는 올해 9월 전북대학교에 부임한 차세대 바이오 연구 분야의 신진 연구자다. 임용 전인 2024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로부터 'GC녹십자 펠로우십(Fellowship)'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KSMCB)로부터 '한미 트래드 그래트(Hammi Trad Grant Award)'를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서 유래한 나노입자(엑소솜)를 정밀하게 설계·엔지니어링해 당뇨성 질환을 비롯해 폐·혈관 등 난치성 질환을 표적으로 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전북대의 바이오·의공학 분야 연구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경기도 도시행정발전 유공 인정

전주대 임미화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받아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임미화 교수가 경기도 도시계획 및 국토·도시관리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

이번 표창은 임 교수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자문 과정에 인구구조 변화 공간구조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를 통해 경기도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 역시 높이 평가됐다. /김재훈 기자